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챔피언스시티 1차', 9월 4일 견본주택 오픈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PFV는 복합개발 프로젝트 '올 뉴 챔피언스시티(이하 챔피언스시티)'의 첫 주거단지인 '챔피언스시티 1차' 견본주택을 9월 4일(금) 오픈한다고 밝혔다.

'챔피언스시티 1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동 100-1번지 일원,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조성된다. 지하 3층~지상 49층, 12개 동, 전용면적 84~214㎡, 총 3,216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체의 약 79%인 2,534가구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시공은 우미건설과 신영씨앤디가 맡는다.

청약 일정은 9월 14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화) 1순위, 16일(수)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22일(화)이며, 정당계약은 10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진행된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자에게 주어진다.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주, 세대원, 유주택자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과거 당첨 사실이 있어도 청약할 수 있다. 단,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경우 1순위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 84㎡는 일반공급 물량의 40%가 가점제, 6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103㎡·112㎡·128㎡와 펜트하우스는 100% 추첨제가 적용되며,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5%이며, 1차 계약금 1,000만원으로 계약할 수 있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전매가 가능해 1차 중도금

납부 전에 전매할 수 있으며, 토지 거래허가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약 9만 평 복합개발의 첫 주거단지... 더현대 광주 등 대규모 인프라 조성

챔피언스시티는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약 29만8,000㎡(약 9만 평)를 개발하는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총 4,315가구의 주거단지와 더현대 광주, 특급호텔, 문화공원, 업무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챔피언스시티 중심에는 '어반 코어(Urban Core)' 개념을 적용해 주요 시설을 보행 동선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특히 챔피언스시티 1차는 전방·일신방직 산업유산을 활용해 조성되는 문화공원과 연결되며, '더현대 서울' 연면적의 약 1.4배 규모로 계획된 '더현대 광주'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더현대 광주는 챔피언스시티 1차 입주보다 앞선 202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어, 입주 초기부터 관련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심 입지인 만큼 기존 생활 인프라도 가깝다. 서광주IC와 무진대로 등 주요 도로망을 이용하기 쉽고, 광주역을 비롯해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신세계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다. 단지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계획돼 있어 찾길을 건너지 않고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출 예정이다.

■ 테라스·3면 발코니 등 특화설계... 신경건축학 설계 도입

'챔피언스시티 1차'는 최고 49층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랜드마크 동 옥탑 구조물과 특화 경관조명 등을 적용해 단지를 상징하는 외관을 구현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는 총 24개 주택형으로 구성된다. 특히 일부 주택형을 제외한 세대에 테라스 설계를 적용하고,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내 3,216가구 공급... 전체의 약 79%가 전용 84㎡로 구성

테라스·3면 발코니 등 특화설계 적용... 광주 최대 규모 통합형 커뮤니티 조성

9월 14일 특별공급, 15~16일 1·2순위 청약... 22일 당첨자 발표, 10월 5~9일 정당계약



올 뉴 챔피언스시티 투시도

/제공=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PFV

3면 발코니 설계를 도입해 서비스 면적을 넓혔다. 이를 통해 같은 전용면적에서도 보다 넓은 실사용 공간을 확보했다. 펜트하우스와 가변형 특화 옵션, 조망형 창호 등도 적용된다.

공간 설계에는 KAIST 정재승 교수와 마인드브릭 디자인랩이 참여해 '신경건축학' 개념을 접목하여, 입주민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조경으로는 단지 중앙에 약 300m 길이의 센트럴파크, 단지 곳곳에 포켓가든 등을 배치해 자연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원형 주거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 광주 최대 규모 통합형 커뮤니티... 교육·스마트·웰스케이까지

챔피언스시티 1차에는 광주 최대 규모의 통합형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25m 실내수영장, 어프로치 타석이 포함된 실내 골프연습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피트니스센터, GX룸, 필라테스룸 등이 마련된다. 또 44층에는 스카이라운지와 스카이게스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된 스카이 커뮤니티가 들어서며, 프라이빗 다이닝룸과 사우나, 티하우스, 펍가든 등도 계획되어 있다. 국내 대표 교육 브랜드와의 협업도 눈에 띈다. 영풍문고는 커뮤니티 내 북카페의 북큐레이션을 맡고, 근린생활시설에 서점과 문구·카페 기능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YBM은 커뮤니티 내 다목적실에

서 원어민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종로엠스쿨은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해 교과학습 및 학습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주민 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그린랩스는 카페형 독서실과 자기주도 학습케어, 관리형 독서실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마트 리빙 시스템도 도입된다. 삼성물산의 주거생활 케어 플랫폼 '홈닉'을 비롯해 청소와 운반 기능을 수행하는 AI 로봇, 음식물쓰레기 자동이송 시스템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 에이앤씨는 상무병원 및 한국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문 응급인력 교육과 건강검진 프로그램 등에

서 협력할 예정이며, 우미건설은 전남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생활권 기반 웰스케어 서비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챔피언스시티 관계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이어 삼성·SK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등 광주에 큰 변화가 예고되며 챔피언스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중"이라며 "주거와 상업·문화·업무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만큼, 이번 견본주택을 통해 첫 주거단지의 상품과 챔피언스시티의 미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챔피언스시티 1차' 견본주택은 챔피언스시티 부지 내에 마련되며, 입주는 2030년 11월 예정이다.

/이가영기자



The Hyundai Gwangju designed by © Herzog & de Meuron